

국민이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1994년 대만정부는 대만에 온 디아스포라 중국인 학생들에게 호적과 신분증 배포를 중지하고 여권은 있지만, 호적이 없는 무호적자 국민으로 정의했다. 일본에서 출생한 일본 태생의 대만 배경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대부분 호적이 없다. 이들은 이렇게 국민의 통합에서 배제됐다. 이들은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대만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국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일본인인가? 일본에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한다고 해도, 혈통주의 단일민족의 일본에서 진정한 일본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는 대만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같았다.⁴⁰⁷⁾ 이들은 어디에 있는지 경계지대를 살아가는 주변인일 뿐이었다. 진정한 나라, 진정한 고향을 찾지 못하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혼돈은 디아스포라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모국이 이념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 거주국이 이주민에게 배타적 성격이 강하다는 문제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

C.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의 이해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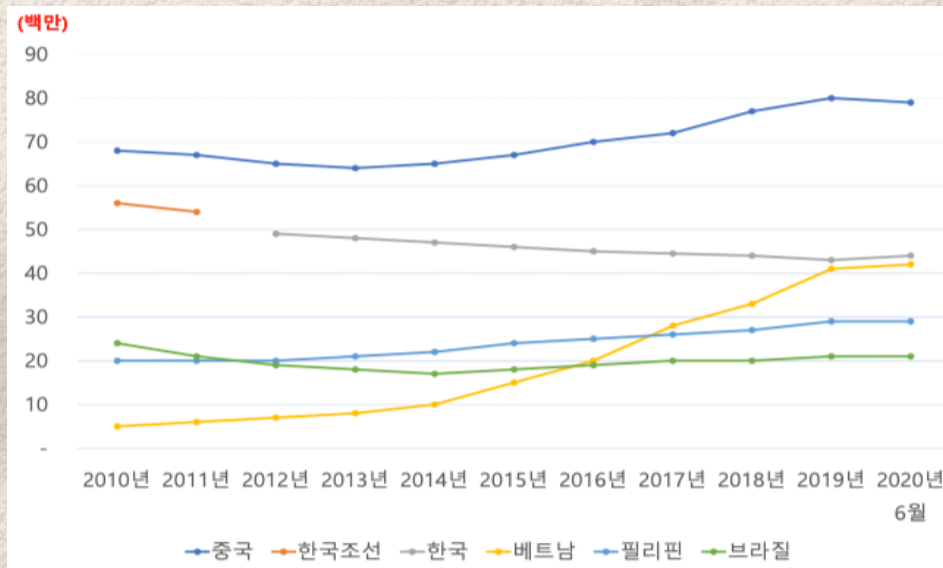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세계적으로 일어난 대규모 이주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이 이주의 현장에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공간이 탄생했음을 논증했다.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의 공간이 선교의 공간이라는 주장을 견지했다. 또한 위기의 시대에 중국선교를 지리적 영토개념을 넘어서 공간개념으로 접근해야 함을 제안했다.

이 장에서는 2004년 5월부터 2021년 9월 현재까지, 일본 거주 중국인 디아스포라 가운데 수행됐던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의 현장을 디아스포라 선교의 주요 특징에 따라 분류, 정리,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가 위기에 처한 중국선교의 새로운 선교공간이 될 수 있음을 실증한

407) 이은상, 박규태, 왕언메이, 이창호, 이토이주미, 『20세기 동아시아 화교의 지속과 변화』, 187-189.

다. 또한 이를 통해 영토개념을 넘어 공간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새로운 중국선교의 가능성을 논한다.

[도표 12]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외국인의 연도별 인구변동추이⁴⁰⁸⁾



1. 경계지대의 선교

경계지대는 이주가 만들어낸 디아스포라 공간의 특징이다. 서로 다른 사람과 문화가 만나 섞이고 충돌하며 새롭게 창조되는 장소다. 또한 서로의 정체성이 더욱 확연하게 확인되는 곳이다. 그리고 경계지대는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항상 기독교 생명력과 확산의 중심역할을 해왔다.⁴⁰⁹⁾ 경계지대는 두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위치에 있다. 두 지역의 인적, 물적인 자원이 경계지대를 통해서 서로에게 유통된다. 또한 경계지대는 국경지대처럼 가장 외곽지대이지만, 동시에 두 지역이 만나게 되는 중심지대다.

408) <http://www.moj.go.jp/isa/content/930006222.pdf> , 접속일: 2021년 3월 9일.

409) Sunquist, 『아시아 기독교 탐구』, 380-381.

일본에서 기독교는 경계지대에 서 있는 종교다. 전체 개신교 기독교인이 인구의 0.3%에 지나지 않으며⁴¹⁰⁾, 일본의 기독교는 그 어떤 교파가 되었던 역사상 장기적으로 성장한 경험이 없다.⁴¹¹⁾ 일본에서 기독교는 신앙으로써 일본 문화와 사회의 벽을 넘어서 주류사회에 진입해보지 못했다. 신도라는 다신교적인 종교문화 속에서 유일신교인 기독교는 뿌리내리지 못했다.⁴¹²⁾ 한마디로 일본에서 기독교는 경계지대의 종교다. 여기에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이중의 경계지대를 살아간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일본인 사회의 바깥쪽 경계지대에 위치한다.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 밖에 있는 나라로, 언젠가 거대 문명의 테두리 밖에서 존재하며, 항상 외국 것과 자기 것을 구별하는 배타성이 강한 나라다.⁴¹³⁾ 이런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중국인은 중심부로 들어가기 더욱 어렵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했던 동남아시아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과는 달리, 초기에 많은 중국인이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으로 이주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일본은 구국운동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 동남아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경우 식민지 시기 지배자와 현지인 사이에서 중개인 임무를 수행하여 많은 부를 획득하고 경제적 우위를 차지했지만, 일본에서는 대부분 일본 국민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비슷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정치적 원인으로,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정체성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다중성을 보여준다.⁴¹⁴⁾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이들은 결국 일본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일본의 경계 지역에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

410) 柴田初男, 『データブック—宣教の更新を求めて(データから見る日本の教会の現状と課題 デ이터로 보는 일본 교회의 현황과 과제)』, Tokyo: FCCブックレットNo8, 2011, 26.

411) Mark R Mullins, *Christianity made in Japan*, 김성건, 이숙희 역, 『일본의 종교-토착교회 운동』, 2019, 6.

412) 최현민, 『일본 종교를 알아야 일본이 보인다』, 서울: 자유문고, 2020, 378.

413) R. Taggart Murphy, *Japan and the Shackles of the Past*, 윤영수, 박경환 역, 『일본의 굴레』, 경기: 글항아리, 2021, 44-48.

414) 임채완 외 4인, 『화인 디아스포라의 다중정체성과 모국 관계』, 2, 3.

교는 경계지대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다.

그런데 경계지대는 기독교의 전파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선퀴스트가 경계지대(borderlands)라는 개념을 선교를 위해서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415)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에서도 경계지대에 대한 고찰은 선교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일본이라는 세계선교의 경계지대 안에 거주하는 또 다른 경계지대, 즉 이중의 경계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선퀴스트의 관찰에 의하면 기독교는 늘 경계선을 넘어서 전해지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종교다. 그리고 기독교는 전파의 과정 중에 경계지대를 통과하는데 이곳은 사람과 문화가 만나는 곳이고, 창조적인 장소였다. 이런 경계지대를 포용한 기독교 지역은 번성했으며, 반면에 이를 무시한 기독교 지역은 고립되어 쇠퇴했다.416)

이주는 경계지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경계지대에 자리 잡은 새로운 선교공간은 전도와 선교의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공간이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기독교 번성의 중요요인이 된다. 또한 이 공간은 다양한 언어, 문화가 만나는 디아스포라의 혼종성(Hybridity)이 다분한 곳이다. 에큐메니컬 운동 가운데 주변부로부터의 선교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일종의 경계지대 선교를 주장한다. 경계지대를 살아가는 이주민, 가난한 사람들, 즉 주변화 된 사람들의 집단적인 경험을 선교의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하며, 주변부 사람들의 주장과 비전이 진정한 선교를 위해 결정적이라고 여긴다.417) 이처럼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위치한 경계지대는 수용성과 혼종성의 지역이며, 창의적인 선교가 가능한 지역이며, 기독교의 확장이 일어나는 지역이면서 진정한 선교를 위해 결정적인 지역이다.

일본선교는 전통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일본은 선교사의 무

415) Sunquist, 『아시아 기독교 탐구』, 384.

416) 위의 글, 380-382, 384.

417) Ross, 『에큐메니컬 선교학-변화하는 지형과 새로운 선교개념』, 469-472.

덤이라는 소리도 종종 들린다.⁴¹⁸⁾ 그렇지만 일본의 경계지대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비롯한 디아스포라 사역은 침체한 일본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일본교회가 경계지대를 포용하는 기독교가 될 때,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더 나아가 디아스포라 사역을 통해서 일본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북반구 지역에 있는 난민선교와 디아스포라 선교를 북반구 교회의 새로운 희망으로 간주하듯이⁴¹⁹⁾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도 동일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위치는 일본과 중국이 만나는 경계지대로, 각자에게는 변두리 경계지대이지만 이 둘이 연합할 때는 양방의 중심지대가 된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을 연구했던 알베르투스 토마스 모리(アルベルトゥス= トーマス・モリ)에 의하면,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그 자체로 선교의 변경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개척 사역이다.⁴²⁰⁾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계지대의 사역임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일본에서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존재는 경계지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다문화 다민족 사회가 아닌 일본에서 외국인은 더욱 바깥의 사람이 된다. 재일교포 3세로 일본에서 디아스포라 한국인의 삶을 살았던 서경식의 글에는 자신을 자주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그는 일본인의 테두리 안에도 한국인의 테두리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경계선 밖에 서 있는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인 자신을 인식했다.⁴²¹⁾ 이것이 일본의 디아스포라가 살아가는 공간이다.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외국인의 존재는 이와 같다. 늘 중심에 있지 못하고 경계지대에 서 있게 된다. 이것은 일본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처한 상황이기도 하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도 비슷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 일본은 단

418) 이수구, 『샷포로의 빛나는 십자가』, 서울: 좋은씨앗omf, 2020, 11.

419) George, *Refugee Diaspora*, 280/3689.

420) 알베르투스= 토마스·모리 (Albertus-Thomas Mori), 『華人キリスト人の越境と宗教実践(화인 그리스도인들의 월경과 실천)』, 149, 167.

421) 徐京植, 『디아스포라 기행-추방자의 시선』, 7/265.

일민족 국민국가로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그 어느 나라보다 더 명확한 경계선이 존재한다. 일본인이거나 외국인이자 그 중간지대는 존재하기 어렵다.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홈랜드(출신국가), 조국, 국적이 일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은 일반 일본인과는 달리 홈랜드, 조국, 국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인이다.⁴²²⁾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이런 고통을 온몸에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2015년 90세로 생을 마감한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 천쑤첸(陳舜臣, Chen Shun Chen)이다. 그는 1924년 일본 고베의 대만 출신 무역상 가정에서 태어났고 평생 일본에서 자랐다.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인 그는 대만 식민지 출신이다. 그런 그가 1946년 고국인 대만으로 돌아갔다가 1947년 대만에서 2.28 사건⁴²³⁾을 겪는다. 그는 국민당 정부에 실망하고 1949년 3월에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온다. 당시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가운데 오직 대만만 정식국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은 일본 국적이 아니면 대만 국적이거나 무국적자로 살아야 했다. 일본에 돌아온 그의 국적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에서 대만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 『길의 중간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청일전쟁에 의해 우리 대만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국적이 청국에서 일본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50년 후 태평양 전쟁으로 또다시 국적이 중국으로 되돌아왔다. 이 또한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되었다.⁴²⁴⁾

이 글에서 자신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바뀌어 버리는 국적에 대한 작가의 체념적 토로가 느껴진다. 후에 천쑤첸은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다가 1989년 6월 중국의 6.4

422) 주로 1980년대 이후로 이주해 온 신이민 세대 이전의 구화교 세대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도 유사하다.

423) 2.28 사건은 1947년 2.28에 대만 전역에서 일어났던 민중봉기 사건이다. 중화민국 정부(외성인外省人 위주)의 국민당 정부의 차별에 불만을 표했던 대만 원 거주자였던 본성인(本省人)들을 대만 국민당 정부가 폭압적으로 학살했고, 이에 맞서 전국적인 항의가 일어났다.

424) 陳舜臣, 『道半ば(길의 중간에서)』, 東京: 集英社, 2003, 54-57.

천안문 사태로 중화인민공화국에 실망하고 1990년 다시 일본 국적으로 돌아왔다. 그의 국적은 일본 국적에서 대만 국적으로, 대만 국적에서 중국 국적으로, 중국 국적에서 다시 일본 국적으로 변했다.⁴²⁵⁾ 그의 정체성은 일본, 대만, 중화인민공화국 그 어느 경계 선상에 있었지만, 그 어떤 국민국가도 그 경계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들의 요구는 국민이 되거나 아니면 다 외국인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가운데는 한 가족이라도 그 안에는 일본, 대만, 중국 국적이 혼재된 경우가 적지 않다.⁴²⁶⁾ 이들은 국민국가 사이에서 그 경계선을 넘나들며 살아가는 경계인(境界人)⁴²⁷⁾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동아시아 냉전 구조로 말미암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경계선을 몇 번씩 넘나들며, 일본, 대만, 중화인민공화국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경계지대를 살아가는 경계인이 되어버렸다.⁴²⁸⁾

따라서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경계지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경계인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이며, 경계와 경계를 이어주는 선교다.

먼저는 2004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홋카이도의 SIC⁴²⁹⁾에서 이루어진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를 살펴보겠다. SIC 중국인 선교의 주 대상자들은 잔류고아(殘留孤兒), 잔류부인(殘留婦人)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디아스포라 중국인 유학생들이었다. 잔류고아와 잔류부인은 일본이 패전 후 만주에서 철수하면서 중국 동북 지역에 잔류하게 된 그들의 부인 혹은 자녀들이다.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 정부의 중국 잔류 방인⁴³⁰⁾ 귀국 정책에 따라 총

425) 이은상, 박규태, 왕언메이, 이창호, 이토이주미, 『20세기 동아시아 화교의 지속과 변화』, 54-57.

426)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은 재일조선인도 같다. 이들은 한일국교 회복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들로, 한국 국적 소지자, 조선적 소지자, 일본국적 소지자로 나뉘는데, 조선적 소지자들은 사실상 무국적 상태에 있다.

427) 여기서 말하는 경계인은 디아스포라 중국인에게 부합하는 명칭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를 넘나들며 존재하는 홈랜드(출신지), 조국, 국적, 혈통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428) 이은상, 박규태, 왕언메이, 이창호, 이토이주미, 『20세기 동아시아 화교의 지속과 변화』, 41-45.

429) Sapporo International Church.

6,708세대 20,888명이 일본으로 귀국했다. 귀국 당시 이들의 평균연령은 70대 중반이었다.⁴³¹⁾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중국의 동북 지역과 기후가 비슷했던 홋카이도에 정착했다. 2004년 당시 SIC에는 이런 잔류고아와 잔류부인들이 10여 명이 출석하고 있었고 연구자는 2004년 5월에 이곳에 부임하여 이들에 대한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다.⁴³²⁾ 이들은 혈통적으로 분명히 일본인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시골 가정에 입양되어 농부가 되어서는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다. 이런 이들이 중국을 떠나 고국인 일본에 귀국했지만, 정상적인 일본인으로 일본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의 언어와 문화는 완전히 중국에 속했지만, 마음 깊은 곳의 정체성은 경계 지역에 있었다. 이들의 생활도 늘 경계지대로 내몰렸다. 일본 후생성의 2017년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66% 이상의 다수가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에 거주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연금을 의존할 정도로⁴³³⁾ 경제적으로 취약했다. 정서적으로도 이들은 경계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천(陈, Chen)이라고 불리는 할머니가 있었다. 이분은 잔류고아 출신으로 일본어도 빨리 배우고 일본 생활에 적응이 빨랐다. 행동 양식도 중국 시골의 할머니라기보다는 일본 중소도시의 일본 할머니 같았다. 이분이 삿포로에 정착해 전쟁으로 헤어졌던 남동생과 어머니를 찾았다. 그런데 남동생이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했다. 남동생도 천 할머니를 만나주지 않았다. 할머니는 일본인이면서도 공간적으로 문화적으로 바깥으로 밀려났다. 중국 동북에서 일생을 보내다가 어렵게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경계선 밖으로 밀려난 것이다. 천 할머니는 사무치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했다. 대부분의 잔류고아가 가족을 잃어 찾

430) 중국에 남아 있던 잔류고아, 잔류부인의 일본에서의 공식 명칭은 중국 잔류 방인(中国残留邦人)이다. 이 용어 자체에도 이미 순수 일본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이미지가 묻어 있다.

431) <https://www.kikokusha-center.or.jp/kikokusha/tohkei/kojitohkei.htm>, 접속일: 2021년 3월 11일.

432) 이수구, 『삿포로의 빛나는 십자가』, 215-216.

433) 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 『平成27年度 中国残留邦人等実態調査結果報告書』, 2017, 1-2.

지 못했고, 찾았다고 해도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천 할머니는 예수를 가족으로 만났다. 그리고 교회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안식처를 찾았다. 그분만이 아니다. 이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찾았다. 하늘의 아버지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공동체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다.⁴³⁴⁾ 이는 이주로 고향으로부터 분리되고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디아스포라들이 종종 갖게 되는 현상으로,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공동체에 마음의 문을 열고 헌신하게⁴³⁵⁾ 되는 현상과 유사하다.

201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삿포로 국제교회의 중국어 예배는 홋카이도 전체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의 중심이 되었다. 특히 경계 지역을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상황을 고려한 사역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선교를 수행함으로 고아로 오래 살아온 그들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리고 신앙으로 어떻게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었다. 그 사역의 중심에는 매년 여름마다 열리는 홋카이도 중국인 수양회가 있었다. 이 수양회는 2박 3일간 함께 시간을 공유하며 말씀, 찬양, 기도 안에서 회복되고, 휴식을 취하고, 서로가 가족과 같이 연결되어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수양회 사역에는 일본인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했다. 중국어가 어려운 2세, 3세들을 같은 교회인 삿포로 국제교회 일본인 성도들이 동참해서 도왔다. 이는 동반자적인 상황화의 협력선교로 디아스포라 선교가 추구하는 마지막 단계인 현지인과의 동반선교로서의 의미(missions with diaspora)⁴³⁶⁾ 있다. 보통 아이들 캠프와 동시에 진행되는 이 행사를 일본인 형제, 자매들이 전담해서 진행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삿포로 국제교회 일본인 그룹이 적극적으로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에 동참했다. 이를 통해서 내 앞에 와 있는 선교 대상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디아스포라 선교가 현지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⁴³⁷⁾ 이러한 연결은 일본 사회

434) Park, *Diaspora Missions at a Glance*, 36-38.

435) Hanciles, *Beyond Christendom*, 219.

436) 김성훈, “디아스포라 선교의 새로운 지평들,” 137-139.

437) Park, *Diaspora Missions at a Glance*, 7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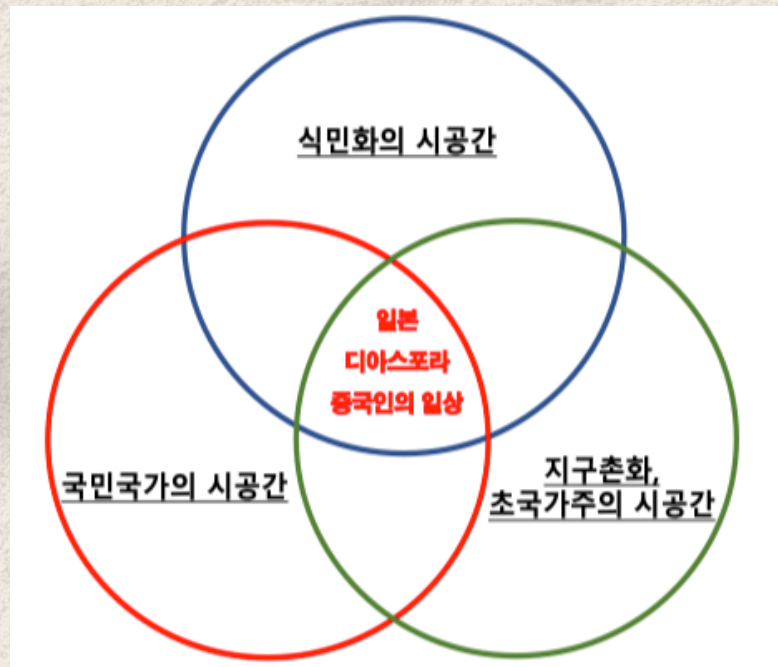
의 경계지대에서 일본과 중국이라는 나라와 문화를 연결하는 경계지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사회경제 지리학자 박규택은 지리학자답게 일본과 한국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연구에 있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시공간을 통한 접근을 제안했다. 그의 연구를 참고해서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을 공간적 관점으로 볼 때, 20세기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식민지 시기 일본 제국주의 중심의 동아시아 공간을 거쳐, 국민국가형성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의 국민국가 공간, 1990년대 이후로는 세계화와 함께 진행된 초국가적 공간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 특히 고정된 공간 이해가 아닌, 현대의 탈근대공간론으로 볼 때 이런 공간은 이 공간에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 본질적, 초월적, 절대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다. 오히려 양자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때문에 역동적으로 생성되고 변화된다. 즉 탈근대공간론으로 볼 때 동아시아 공간, 국가 공간, 로컬 공간은 디아스포라 중국인들과 상호 관계적 작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만든 동아시아 시공간, 1940년대 이후로 만들어진 국민국가 지배체제에 의한 시공간, 1972년 중일 국교 수교, 세계화, 교통 통신의 발달이 가져온 초국가주의 시공간으로 중층(重層)적으로 관계를 맺고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공간에 존재한다. 또한 이렇게 서로 다른 시공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서 교차한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존재하는 로컬리티(locality)에⁴³⁸⁾ 사이성(in-betweenness)이 나타난다. 이 세 시기의 시공간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공통적인 부분이 기존과 다른 새로움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다.⁴³⁹⁾ 이 공간이 디아스포라 때문에 새롭게 생겨난 선교의 공간이다. 바로 이 공간이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이 가능한 선교의 공간이다. 구체적인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도표 13]을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38) 본 논문에서 로컬리티는 디아스포라 중국인이 존재하는 지금, 여기라는 공간이다.

439) 이은상, 박규태, 왕언메이, 이창호, 이토이주미, 『20세기 동아시아 화교의 지속과 변화』, 68-74.

[도표 13] 중층적, 혼종적 시공간을 통한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이해⁴⁴⁰⁾



일본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초국가적인 시공간이 중층적인 관계를 맺고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 공동의 공간이 사이성의 공간이며 창의적인 선교의 공간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동경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이러한 사이공간에서 이루어진 사역이다. 모리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에서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에 있어서 오래된 교회들은 비교적 이주의 사유보다는 정주의 사유를 주로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교회를 넘어서 타 교회와 연합하여 사역한다거나 교파를 초월해 협력하는 일 자체를 거의 진행하지 않았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440) 이 도표는 위의 글, 73페이지의 ‘중층적, 혼종적 시공간을 통한 한국 화교 이해의 틀’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모형으로 적용하여 만들었다.

활동을 전개하기보다, 기존의 모임을 유지하고 교회를 지키는 데 힘을 쏟았다.⁴⁴¹⁾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2012년부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초교파 단체인 JCC의 발족이다.⁴⁴²⁾ JCC는 초교파 단체로 동경 및 일본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배경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이⁴⁴³⁾ 모여 2013년 결성한 단체다. 이 단체는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 전도, 기존 그리스도인 제자 양육, 세계선교의 동참이라는 비전을 갖고 활동하게 되었다.⁴⁴⁴⁾ JCC는 일본인과 중국인 사이의 경계지대, 중국과 대만 기독교인의 경계지대, 복음주의 교회와 오순절 교회 사이의 경계지대,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과 해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이의 경계지대에 설립되어 이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주로 감당했다.

JCC의 구체적인 활동은 복음 전도를 위한 연합전도 집회, 전도가 가능한 신자 양성을 위한 제자훈련,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가운데 선교사를 발굴, 훈련, 파송하는 것이다.⁴⁴⁵⁾ JCC는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들 사이에 존재하는 대륙인과 대만인 사이의 긴장, 복음주의 교회와 오순절 교회 사이의 장벽을 뛰어넘어 함께하는 장을 만들어내는 모임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모임은 연합활동에 부정적이었던 교회들에도 복음 전도에 대한 자극을 주었다. 한 교회는 본래 JCC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으나, 개인 신분으로 연합

441) 알베르트우스= 토마스·모리 (Allbertus-Thomas Mori), 『華人キリスト人の越境と宗教実践(화인 그리스도인들의 월경과 실천)』, 158-165.

442) JCC(Japan Chinese Christian Center)는 2012년 5월에 진행된 디아스포라 중국인 연합전도대회를 계기로 11월에 결성되었으며,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사회 안에 복음전파, 제자양육, 선교 동원을 지향한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전도와 선교 동원에 활동 역량을 집중해, 각종 집회와 훈련, 단기 선교운동과 장기선교 지원하고 있다. 장기적인 목표로 800명의 교회 개척자들을 훈련하고, 이를 통해서 400개의 소그룹을 양성해, 200명의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http://tokyo-jcc.com/contactus/>, 접속일: 2021년 5월 21일.

443)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대만, 미국, 캐나다 등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중국인들이 중심이 됐다.

444) 알베르트우스= 토마스·모리 (Allbertus-Thomas Mori), 『華人キリスト人の越境と宗教実践(화인 그리스도인들의 월경과 실천)』, 166-167.

445) 더욱 자세한 설립 취지, 비전, 사명 선언 등은 다음의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http://tokyo-jcc.com/vision/>, 검색일: 2021. 9월 10일.

활동에 참여했던 신도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전에는 없었던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선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기도 했다.⁴⁴⁶⁾

JCC의 설립과 활동은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가운데 전도, 선교를 촉진했으며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⁴⁴⁷⁾ JCC가 일본인과 디아스포라 중국인, 중국과 대만, 홍콩, 복음주의 교회와 오순절 교회,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과 해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이의 경계지대에서 하는 연결하고 소통하는 선교는 [도표 14]에 정리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JCC의 주요활동 일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446) 百古樂, “在日華人教会の布教と課題: 在日華人クリスチャンセンターの活動を事例に(재일 화인교회의 포교와 과제:재일 화인 크리스천 센터의 활동을 사례로),” 282-283.

447) アルベルトウス= トーマス・モリ (Albertus-Thomas Mori), 『華人キリスト人の越境と宗教実践(화인 그리스도인들의 월경과 실천)』, 167-173.

[도표 14] JCC 주요활동 일람(2020년 9월 현재)⁴⁴⁸⁾

일시	활동	분류
2013. 5.11-12.	연합 전도대회(미국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연합전도대회
2013. 10.8-10.	신앙훈련 강좌 (말레이시아 감리교회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신앙훈련 강좌
2013. 11.1-2.	신앙훈련 강좌 (캐나다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신앙훈련 강좌
2014. 1.6-11.	제1회 연합 단기 선교(태국 치앙마이 북부 중국 난민)	세계선교
2014. 2.5-8	제4회 동아시아 기독 청년대회(한국 제주도)	국제교류
2014. 5.3-5.	연합 수양회(미국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신앙 수련회
2014. 6.25-29	신앙훈련 강좌 (말레이시아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연합전도대회
2014. 8.22-24	연합 전도대회(미국 디아스포라 중국인 찬양 팀)	연합전도대회
2014. 9.14	신앙훈련 강좌(미국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신앙훈련 강좌
2014. 10.18.-19	연합 전도대회(미국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연합전도대회
2014. 11.2	연합 전도대회(싱가포르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연합전도대회
2014. 12.15	신앙훈련 강좌	신앙훈련 강좌
2015. 1.3-5.	신앙훈련 강좌	신앙훈련 강좌
2015. 2.4-7	제5회 동아시아 기독 청년대회(한국 제주도)	국제교류
2015. 3.28	신앙훈련 강좌	신앙훈련 강좌
2015. 5.4-5	신앙훈련 강좌	신앙훈련 강좌
2015. 5.16-17	연합 전도대회(미국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연합전도대회

448) 본 도표는 연구자가 알베르투스= 토마스·모리 (Allbertus-Thomas Mori), 『華人キリスト人の越境と宗教実践(화인 그리스도인들의 월경과 실천)』, 168쪽과 JCC 홈페이지 자료,; <http://tokyo-jcc.com/event/>를 참고로 분류, 분석하여 작성했다. 본 도표는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연합사역의 성격과 방향성을 보여준다.

2015. 6.27	신앙훈련 강좌	신앙훈련 강좌
2015. 7.11	신앙훈련 강좌	신앙훈련 강좌
2015. 8.29	신앙훈련 강좌	신앙훈련 강좌
2015. 8.28-30	신앙훈련 및 전도(말레이시아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신앙훈련 강좌
2015. 9.16	신앙훈련 강좌	신앙훈련 강좌
2015. 10.24	신앙훈련 강좌 (미국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신앙훈련 강좌
2016. 1.5-8	제6회 동아시아 기독 청년대회(홍콩)	국제교류
2016. 3.19	신앙훈련 강좌	신앙훈련 강좌
2016. 4.9	신앙훈련 강좌	신앙훈련 강좌
2016. 5.3-5	연합 수양회(미국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신앙 수련회
2016. 5.21	연합 전도대회(미국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연합전도대회
2016. 9.4	연합 단기 선교(대만 제 아이 기독병원)	세계선교
2016. 10.8	신앙훈련 강좌	신앙훈련 강좌
2017. 2.21-23	제7회 동아시아 기독 청년대회(홍콩)	국제교류
2017. 5. 12-21	연합 전도대회(일본 전국 6개 곳에서, 미국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연합전도대회
2017. 6/19-23	연합 단기 선교(대만 지아이 기독병원)	세계선교
2018. 3.19-24	연합 단기 선교(대만 지아이 기독병원)	세계선교
2018. 5.20-30	연합 전도대회(일본 전국 7개 장소, 미국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연합전도대회
2019. 3.18-23	연합 단기 선교(대만 지아이 기독병원)	세계선교
2019. 5.18-26	연합 전도대회(일본 전국 7개 장소, 미국 디아스포라 중국인 강사)	연합전도대회
2020. 2.12-15	제9회 동아시아 기독 청년대회(일본 도쿄)	국제교류
2021. 2.23	제9회 동아시아 기독 청년대회(일본 도쿄)	국제교류

구체적으로 활동 내용을 어떤 경계지대에서 어떠한 연결과 소통의 사

역을 진행했는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14]에서 JCC의 2013에서 2021년까지의 8년간의 활동을 분석해 보면, 정기적인 기도 모임과 작은 회의나 세미나를 제외하고 비교적 규모가 있는 집회나 모임, 각종 전도대회 등이 총 39회 있었다. 그중에서 전도, 선교와 관련된 집회가 총 21회로 전체의 53.8%에 이른다. 그리고 이외에 16회에 이르는 신앙훈련 강좌도 전도와 선교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면 전도와 선교 관련 집회의 비중은 총 94.8%에 이른다. 이는 JCC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모임 활동의 성격이 매우 전도, 선교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가 참석자들의 최우선적 필요이기 때문에 통계수치는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의 필요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새로운 공간이 가진 공간적 특징이 선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동시에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선교가 활성화되고, 선교의 동력화가 될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미 다문화를 경험하고 이중 언어에 훈련되어 있으며 이주 경험이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선교는 그리 낯선 세계가 아니며 가깝고 어렵지 않게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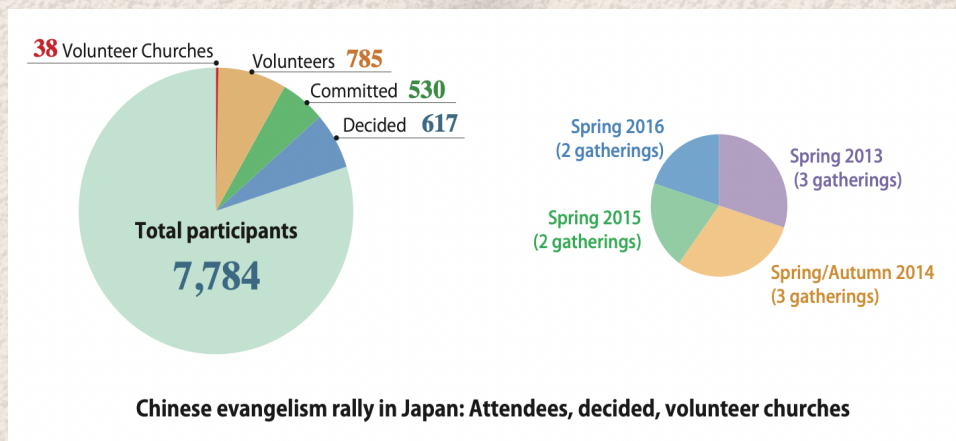
또한 [도표 14]에 나타난 연합전도대회와 연합 수양회의 강사진을 분석해 보면, 총 13회의 대회와 집회 강사 전원이 디아스포라 중국인 출신이다. 이를 통해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전도대회가 해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공동체와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가교역할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통계는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해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공동체와 강한 연대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디아스포라의 특징 중 하나로 국경을 초월해 갖는 디아스포라 간의 연대감이다.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이의 연대감,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공간에서의 연대감은 선교공간 안에서도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이상의 JCC 연합활동의 말씀 강사와 간증 초청 게스트를 분석해 보면 디아스포라의 특징인 혼종성이 드러난다. 말씀 강사가 전원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인데, 이들과 함께 무대에 서야 했던 간증자의 구성은 실로 다양했다. 대만인, 홍콩인, 일본인 등이다. 이는 일

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공동체가 선교공간에 있어서 수용성이 비교적 높으며, 이 수용성은 전도와 선교 안에서 더욱 강하게 발휘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집회는 경계와 경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여 상호 소통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1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014년에서 2016년까지의 JCC 전도대회 보고통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대회 봉사 참여 교회 수가 누계 수치로 38개에 이른다. 이는 매년 평균 12개 교회 정도가 봉사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일본에 있던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의 1/4에 이르는 숫자다. 이 통계는 연합 전도대회가 교파가 다른 교회 간의 연합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경계지대에서 유의미한 임무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경계지대에 위치하면서, 일본인과 중국인, 교회와 교회, 일본과 세계, 디아스포라와 디아스포라를 연결하는 중심지대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중국인 공간이 새로운 중국선교의 공간으로써 유용함을 드러냈다.

[도표 15] 2013~2016년 JCC 연합전도대회 보고통계(449)



449) Park, *Diaspora Missions at a Glance*, 51.

2. 주변성의 선교

디아스포라 공간은 주변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이런 주변성의 특징에 기초한 선교다. 주변성은 경계지대를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주변성과 경계지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주변성은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외각을 의미하며, 경계지대는 둘 사이의 경계를 의미한다. 주변성은 주변으로부터 시작해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새로운 물결의 출발점이며, 경계지대는 둘을 연결하는 중심점이다. 그러나 이 둘은 공간적으로 중복되며 연결된다.

이런 경계지대에 선 주변인의 고충과 가능성은 일본의 재일한국인 서경식의 시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경식은 자신의 저서 『디아스포라 기행』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고정되고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대상도 그것을 보는 편이 불안정하게 움직일 때는 달리 보인다. 다수자들의 고정되고 안정적이라고 믿는 사물이나 관념이 실제로는 유동적이며 불안정한 것이라는 사실이, 소수자의 눈에는 보인다.⁴⁵⁰⁾

안정되고 고정된, 즉 정주(定住)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이주(移住)하는 디아스포라, 주변인의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처럼 디아스포라의 시야는 중심부 사람들에게 새롭게 자기와 자기 사회를 바라보게 도와준다. 학술 평론가 강성민은 2000년대 들어와 한국 지식 담론을 선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송두율, 강상중, 윤건차, 박노자, 서경식 등 디아스포라 경계인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들이 외부자의 시선으로 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시야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게 한다고 했다고 했다.⁴⁵¹⁾ 이처럼 주변인

450) 서경식, 『디아스포라 기행-추방당한 자의 시선』, 11/184.

451) 강성민, “인간이여 너는 무엇인가? 디아스포라가 펼치는 존재의 현상학,” 『인물과 사상』 통권 제111호, 2007, 80.

시각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듯이, 주변부를 다루는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적인 시각도 선교신학의 발전에 신선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디아스포라가 갖는 주변성이라는 특징 때문이다. 주변부로부터의 시작된 물결이 중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정된 시야가 아닌 움직이는 시야, 단일 문화가 아닌 다중문화, 획일성이 아닌 혼종성의 특징을 가진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은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일본은 단일 문화와 획일성을 강조하는 사회다. 이런 가운데 디아스포라 중국인이 가진 주변성은 주변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시 중심부로 향하는 디아스포라의 관점, 다양성, 독창성을 제공한다. 매년 한, 두 명의 일본인들이 중국 교회(TNIC)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 이들의 간증을 참고해 보면, 주변의 중국 그리스도인의 전도가 이들의 세례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인과 다른 직설적이고 과감한 중국인의 독특한 전도가 오히려 일본인을 강하게 신앙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중국인의 특징은 일본인 선교의 중심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성의 특징이다.

주변성에 대한 신학적 고찰은 재미 신학자 이정용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는 미국에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디아스포라 아시아인으로서, 디아스포라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다. 이정용은 이런 고민을 녹아낸 시선으로 그가 공부하는 신학을 다시 보고, 다시 본 것을 새롭게 써 내려갔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의 주변성의 신학이다. 이정용이 주장하는 주변성 신학은 중심부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하는 신학이다. 모든 물결을 받아들여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연못의 가장자리처럼 말이다.⁴⁵²⁾ 수용의 주변성은 다시 물결을 일으켜 중심부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주변성의 신학은 이주민의 신학이다.⁴⁵³⁾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직간접적으로 일본 선교와 연결

452) Lee, *Marginality*, 948.

453) 위의 글, 966.

되어 있고, 협력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영향을 흡수하지만, 이를 다시 영향을 미치는 물결로 만드는 작업이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또한 디아스포라 중국인이 가진 주변성이 일본의 단일민족 문화의 폐쇄성에 다양함을 노인국가의 노쇠함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다.

3. 성령 중심의 선교

선퀴스트는 자신의 저서 『기독교 선교의 이해』에서, 성령 부분을 비교적 소중하게 다루면서 지난 세기 동안 오순절 운동, 은사 운동, 토착 운동이 기독교의 중앙무대를 차지했으며, 선교는 더 강하고 투명하게 성령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강조처럼 선교 현장에서 강하고 투명한 성령에 대한 이해 없이 선교는 불가능하다. 디아스포라 선교 현장은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지난 기간 성령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처럼 주로 주변인들이었기 때문이다.⁴⁵⁴⁾ 경계지대에서 살아가고, 주변인으로 이주의 사유가 중심인 디아스포라인 선교에서 성령 중심의 선교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디아스포라로 말미암아 생겨난 선교공간은 경계지대에 조성되고, 주변성을 지녔다. 또한 이곳에서는 창조적인 선교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 기초에는 성령의 선교가 자리 잡고있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에서 보이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성령 중심의 선교다. 특히 로랜드 알렌(Roland Allen)의 성령 중심의 선교신학을 뿌리로 삼고 있다. 알렌은 중국선교의 현장에서 사역했던 현장 선교사 출신의 선교신학자이면서, 일생 중국, 인도, 캐나다,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그리고 케냐로 이주해 다니면서 현장 선교에 참여했다. 그는 마지막 사역을 케냐에서 감당하고 거기서 영면했다.⁴⁵⁵⁾ 알

454) Sunquist, 『기독교 선교의 이해』, 445-450.

455) Steven Richard Rutt, *Roland Allen-A Missionary life*, Cambridge: The Lutterworth

렌은 평생 이주하면서 살아간 디아스포라이면서, 동시에 이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연구하는 선교신학자였다. 특히 알렌은 당시 서구선교가 범하고 있던 오류를 제대로 인식하고 개혁을 주장했으며, 그의 이런 혁신적인 사고방식은 후에 선교 현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시대를 앞선 선교전략이었음이 증명되었다.⁴⁵⁶⁾ 이런 알렌의 현장을 기반으로 하며, 디아스포라의 경험이 담긴 성령 중심의 선교신학은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을 이해하는데 핵심 내용을 제공한다.

알렌의 성령 중심의 선교신학은 성령의 일들이 자주 그리고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디아스포라 선교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이다. 연구자는 2008년 알렌을 알게 된 이후, 2009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도쿄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에서 알렌의 성령 중심의 선교를 중요한 기초로 삼았다. 그리고 이 성령 중심 선교의 탁월함을 현장 사역에서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다. 알렌의 성령 중심의 선교신학은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일본 거주 중국인 디아스포라 선교를 알렌의 성령 중심의 선교신학의 관점에서 고찰하도록 하겠다.

본 논문에서 논하는 성령 중심의 선교란 알렌의 성령 중심의 선교를 주요 근거로 하는 성령의 선교를 말한다. 이는 성령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에 기초한 사역을 의미한다. 선교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믿고, 모든 것을 성령에 맡기며, 토착적이고 자발적인 교회 개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⁴⁵⁷⁾ 선교의 영이신 성령이 시작하고, 인도하고, 주체가 되는 선교를 의미한다. 알렌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선교는 선교의 본질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 선교의 모든 면이 그 시작, 발전, 열매 맺히기까지의 전 과정이 성령과 연결된다.⁴⁵⁸⁾ 알렌

Press, <https://amz.run/5B4F>, 2018, 142.

456) 김상근, “로랜드 알렌이 제시했던 바울의 선교방법,” 『기독교 사상』 통권 제557호, 2005, 240-241.

457) 최성일, “롤랜드 알렌의 바울 선교 방법론과 성령의 선교에 대한 이해,” 『신학연구』 제37집, 1996, 366-367.

458) Roland Allen,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홍병룡 역, 『바울의 선교 vs. 우리의 선교』, 서울: IVP, 2008, 25.

은 서구선교의 여러 가지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해결책으로 바울의 선교에 주목했다. 서구의 복잡한 교회 시스템 도입, 의존적으로 만드는 재정의 투입, 복음의 본질을 혼동케 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선교사역에 비판을 가하고 복음의 본질에 주목한다. 그는 서구선교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신뢰하지 않고 율법을 따르는 선교를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시기에 이분을 사모하면 자연스럽게 선교의 열정이 타오른다고 했다.⁴⁵⁹⁾

알렌의 성령의 선교는 선교 현장에서 탄생하는 교회가 자립하는 토착 교회와 연결되는 성령론이다. 알렌은 그의 책 『바울의 선교 vs 우리의 선교』에서 다음과 같이 성령의 선교가 바울 선교의 핵심임을 이야기했다.

바울의 교회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토착적이었다. 그 비결은 다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교회를 지역 교회로 인식했다는 점이고(우리가 가진 국가교회의 개념과 반대로), 다른 하나는 회심자들과 그들이 속한 교회에 내주하는 성령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한 권위를 갖고 그들을 세울 수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 처지에서는 오늘날 성령을 그런 식으로 신뢰하기가 무척 어렵다. 우리의 회심자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믿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믿는 편이 더 쉽다. 우리는 초심자들을 그분께 의탁하지 못한다.⁴⁶⁰⁾

알렌이 주장했던 바울의 선교방법, 즉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 안에 내주하는 성령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내재하신 성령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신뢰와 위임이 연구자가 수행했던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의 핵심 내용이었다. 성령에 대한 신뢰는 성령의 내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뢰와 위임으로 이어진다.

연구자가 수행한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크게 세 가지 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첫째는 TNIC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개척 사역, 둘째

459) Roland Allen, *Missionary Principles*, 권순광 역, 『선교의 영』, 서울: CLC, 2008, 22-50.

460) Allen, 『바울의 선교 vs. 우리의 선교』, 15, 16.

는 JCC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전도와 선교사역, 셋째는 도쿄 다니엘 국제학교 (Tokyo Daniel International School)를⁴⁶¹⁾ 중심으로 하는 교육사역이다. 이중 JCC의 경우 알렌의 주장처럼, 현지인들의 필요 때문에 현지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현지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된 사역이다.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현지인들이 책임을 맡고 있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다음 현지인에게 이양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현지인들이 중심이 되었다. JCC가 일반적 연합활동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점은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자발성이다.⁴⁶²⁾ 연합사역이지만 각 교회가 자신의 대표를 임명하고 임명된 대표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연합사역이 아니라,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영적 필요에 공감하고 사역에 대해 부르심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각각의 개인들이 교회가 아닌 자신을 대표해서 참여했다.⁴⁶³⁾ 또한 JCC의 재정 운영은 처음부터 외부 지원 없이 회원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 재정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담했다.⁴⁶⁴⁾ 그리고 JCC는 자체적으로 재정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 규모의 사역은 추진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JCC 안에는 자체 재정으로 충당이 가능한 사역이 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선교로의 부르심에 관한 성령의 감동 강조,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내재하는 성령에 대한 존중과 확신, 그리고 그 내재의 성령이 선교의 영이라는 분별은 현장 선교사역을 현지인 중심의 자발적이고 토착적인 토대 위에 올려놓는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외부가 아니라 선교사 내부에 있다.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현지인 안에 임재 하는 성령님을 존중하려면, 선교사 자신의 불신, 조급함, 교만과 싸워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주하

461) 이하 TDIS로 약칭함.

462) 百古樂, “在日華人教会の布教と課題: 在日華人クリスチャンセンターの活動を事例に(재일화인교회의 포교와 과제: 재일 화인 크리스천 센터의 활동을 사례로),” 274.

463) Park, *Diaspora Missions at a Glance*, 45-48.

464) 참고로 JCC 홈페이지 상에 공개된 2013년 1차 동경 화인 전도대회의 재정보고서를 살펴보면, 전체 3,344,744엔의 수입 가운데, 외국에서 들어온 헌금은 9.2%에 불과했다. 이 또한 모금한 헌금이 아니고 대부분 관련된 개개인이 보내준 헌금이였다; <http://www.tokyo-jcc.com/images/20130727balance.pdf>, 접속일: 2021년 5월 27일.

시는 성령님, 동일하신 그분에 대한 신뢰만이 현지인에 대한 전적인 위임을 가능하게 만든다. 디아스포라 공간에서의 성령중심의 선교는 디아스포라 선교의 중요한 특징으로 중국선교의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4.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의 특징

중국선교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선교의 공간을 탐색해야 하며, 중국선교를 공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중국선교를 공간적 관점에서 볼 때, 이주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된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공간은 실제적인 대안이 된다. 특히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선교가 지난 기간 드러낸 선교적인 특징은 새로운 중국선교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이 특징 가운데는 일부는 일반적인 디아스포라 선교와 일치되는 특징이며, 나머지 일부는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이주와 세계화라는 시대성이 반영된 선교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이주의 시대라는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선교는 대규모 이주와 세계화라는 시대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⁴⁶⁵⁾ 이러한 시대성을 반영하는 선교라고 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는 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며, 그들의 긴급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선교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선교의 현장에서 보이는 이주라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시기성을 가진 선교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시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디아스포라 선교의 중심에는 디

465) Wu, *Mission through Diaspora*, 11-14.

아스포라가 있는데, 이들은 이동성이 매우 강하고, 이들의 이동은 정치, 경제, 사회의 영향에 따라서 시기성을 가진다. 멕시코 계절노동자로부터 시작해 유학생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자기 생의 일정 기간만 외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간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선교는 특정 시기에 한정적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선교는 전략적으로 시기 포착을 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이판화인교회(Chinese Christian Church of Saipan)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의 경우가 시기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실제 예이다. 연구자는 2002년 1년간 사이판 화인 교회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에 동참했는데, 이 교회는 사이판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비자 상황에 따라 선교사역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 1992년 작은 모임으로 시작된 이 교회는 후에 10여 년간 1,300명의 중국인이 세례를 받았으며, 한때 300~500여 명이 주일예배에 출석했다. 그러나 2005년경부터 사이판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변화로 사이판의 중국계 의류공장들이 철수하게 되고, 여기서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사이판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내리막에 들어서게 된다.⁴⁶⁶⁾ 사이판 화인 교회는 명맥을 유지했으나 불과 수십 명대로 교회 회원이 줄어들었다. 과거 10여 년의 기간이 사이판 화인교회의 주요 추수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디아스포라 선교는 특정한 기간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많은 사람에게 더 쉽고 빠르게 선교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주의 흐름을 따라,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더 나은 기회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많은 경우 이들의 이동은 북반구 국가들로 향했는데, 이로 인해서 북반구 교회와 일부 남반구 교회에서 디아스포라 선교가 활성화되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선교가 가능해졌고,⁴⁶⁷⁾ 미전도 종족이 자신들의 문 앞에 와 있는 상황이 생겨났기 때문에⁴⁶⁸⁾ 좀 더 많은 사람이 좀 더 쉽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

466) 彭國雄, 『豐收10年』, Saipan: 塞班華人教會, 2002, 17-21, 24-57.

467) Tira, *A Hybrid World*, 272.

었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사키(佐々木 Sasaki)라는 일본 목사가 있다. 그는 중국어를 전혀 못 하지만, 중국선교의 비전을 받고는 자신이 사는 홋카이도에 유학 오는 중국인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의 집에서 한 달에 한 번 일본어로 열리는 주일 저녁 식사 모임에서 수많은 젊은이에게 복음을 증거 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했다.⁴⁶⁹⁾ 북미의 교회들도 이런 변화를 선교의 기회로 삼고자 교회와 성도들을 디아스포라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⁴⁷⁰⁾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를 통해서 선교 참여의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참여의 기회가 많아졌다.

넷째,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아직 많은 영역이 미개척지인 선교다. 일본에는 실제로 디아스포라 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지역이 많다. 일본교회의 디아스포라 선교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있다. 많은 지역의 디아스포라들이 교회, 모임, 특히 이를 인도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선교 현장의 디아스포라 선교사의 필요 외에도 디아스포라 선교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 평가들이 미천한 상태다. 일반 디아스포라에 대한 일반학문에서의 연구는 발전해 있으나, 선교적인 영역은 연구도 발표도 드물다. 따라서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선교는 개발 여지가 많은 블루오션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⁴⁷¹⁾ 일본인도 선교가 쉽지 않은데, 북미지역에는 디아스포라 일본인 중에서 연간 1,600여 명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⁴⁷²⁾ 이는 디아스포라 선교가 갖는 장점이다. 고향을 떠난 이들은 새로운 곳에 정착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도뿐만이 아니다. 디아스포라 선교와 연관되어서 구성된 선교 환경의 많은 부분이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디아스포라를 전도하고, 현지 일본인과 연결, 협력하여 선교를 새롭게 시

468) Payne, *Strangers Next Door*, 65.

469) Park, *Diaspora Missions at a Glance*, 38.

470) Massey,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168/6934.

471) Park, *Diaspora Missions at a Glance*, 9.

472) <https://bityl.co/8kRD>, 접속일: 2021년 9월 19일.

작하고, 이런 활동을 정리, 연구하여 학문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아스포라 선교를 개발하는 등, 많은 부분이 미답지다. 디아스포라 선교현장은 더 많은 참여자가 필요하다.

다섯째,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선교는 선교 대상자들의 마음 상태가 복음의 열려 있는 이들이 많다. 디아스포라들은 이주해서 새로운 정착지에 오기 이전보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 이주로 인해 겪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열린 마음, 기존의 환경과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는 복음에 더 열려 있는 경향이 있다.⁴⁷³⁾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의 동일한 상황인데, 연구자의 교회공동체의 경우 2/3 이상이 일본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특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디아스포라 선교는 복음을 영접한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선교다. 디아스포라 시절 복음을 접하고 변화된 사람들은 귀국 후 본국에서 비교적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일하게 된다. 학교의 교수, 연구원 등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회사의 임원들이 되기도 한다. 예전만은 못하지만, 유학의 경험과 학력이 이들을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오르게 한다. 따라서 이런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된 지도자가 돕는 디아스포라 선교는 디아스포라의 모국이나 거주국 모두에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필요에 따라, 중국이나 일본에서 귀국자를 위한 선교 단체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일곱째, 디아스포라 선교는 강한 선교 재생산성을 갖고 있다. 디아스포라의 삶은 이동이 중심이다. 끊임없이 이주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이주의 특성은 기독교의 선교가 가진 특징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또한 디아스포라는 존재 자체에 선교적인 유전자가 각인 되어 있는 것처럼 강한 선교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아마도 이방인 선교의 사상이 디아스포라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⁴⁷⁴⁾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가 선교에

473) Hanciles, *Beyond Christendom*, 219.

적극적인 성향을 자주 보여준다. 이들은 자신이 거주한 지역의 현지인들을 향한 선교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다.⁴⁷⁵⁾ 이는 디아스포라 아프리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⁴⁷⁶⁾ 디아스포라의 강한 선교적인 성향은 현장 선교로 연결되어 건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여덟째,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Total & Long) 필요한 선교다. 이는 디아스포라 선교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디아스포라 선교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디아스포라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특징은 잦은 이동성이다. 선교의 대상들이 대부분 유학 기간이나 주재원 기간을 마치면 귀국하게 된다. 이들이 귀국한 이후의 삶, 특히 신앙의 삶이 사실 디아스포라 선교의 최종적인 결과가 된다. 애석하게도 귀국자들이 디아스포라 시절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경우 귀국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은 15%~25%에 지나지 않는다.⁴⁷⁷⁾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이 귀국 후에도 빛과 소금으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디아스포라 선교의 최종 목표다. 그러려면 디아스포라 선교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현재 이곳에서의 선교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귀국 후까지도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 이런 선교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사이판화인교회이다. 사이판화인교회는 주로 2년의 단기 계약을 위주로 단기적으로 사이판에 체류했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했다. 2년 후면 반드시 귀국하게 되는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훈련한 이후, 교회 목사님이 매년 정기적으로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서 이들을 돌보고 권면하고 세워나갔다. 미국의 정책 변화로 중국인 수가 급감해 지금의 사이판화인

474) 배희숙, “구약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선교,” 14.

475) 김현배, “유럽 한인 교회의 선교 허브의 중요성,” 『미션인사이트』 제4집, 2013, 117-122.

476) Hanciles, *Beyond Christendom*, 248

477) Tira, 『디아스포라 선교학』, 740-745.

교회는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반면에 중국 국내에는 이 교회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개척된 교회와 모임들이 다수 생겨났다. 정기적인 귀국자 돌봄으로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었다. 또한 귀국자에 관한 지속적 목양은 이들의 신앙에서 이탈할 확률을 대폭 낮출 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동역을 통해 새로운 선교의 가능성을 열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런 복음을 영접하고 귀국하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 주목하여 귀국자 신앙 안내 책자가 발행되기도 하고,⁴⁷⁸⁾ 이들을 돕는 단체들이 결성되고 있다. 이는 디아스포라 일본인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매년 북미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디아스포라 일본인이 1,600여 명에 이르지만, 귀국 후 교회 정착 비율이 20~3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⁴⁷⁹⁾ 이러한 귀국자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JCFN⁴⁸⁰⁾이라는 단체가 결성되어 귀국한 디아스포라 일본인들을 돕고 있다.

아홉째,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는 이주의 사유를 특징으로 한다. 이주의 사유는 정주의 사유와 대비된다. 이주의 사유는 수용적, 통합적, 유동적이며 혼종적인 특징을 보인다. 또한 디아스포라는 창조적이고 풍부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아마도 이주의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이들의 창조성을 자극하는 것 같다.⁴⁸¹⁾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중심부에 고정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시야를 갖고 있다. 이는 이주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이처럼 이주의 사유를 지속해서 개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는 선교와 연결된다. 이상의 아홉 가지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의 특징은 디아스포라 공간의 선교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이를 통해서 선교의 공간으로서 디아스포라 공간의 적절성을 드러낸다.

478) 海归手册(Returnee Handbook), <https://bityl.co/8kRO>, 접속일: 2021년, 9월 12일.

479) <https://bityl.co/8kRa>, 접속일: 2021년, 9월 12일.

480) Japanese Christian Fellowship Network, <https://bityl.co/8kRH>, 접속일: 2021년, 9월 12일.

481) Cohen, 『글로벌 디아스포라: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28, 29, 234.

D. 요약과 결론

이주의 시대에 선교의 새로운 공간이 나타났다. 디아스포라 선교공간이다. 이 공간은 디아스포라의 이주 전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형성되는 관계적 공간이며, 경계지대와 주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선교공간이다.

디아스포라의 본래 고국에서 집단적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일을 경험하고 강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의미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대인, 아프리카인, 아르메니아인, 아일랜드인의 이주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주의 성격, 규모, 흐름이 변화되고 디아스포라의 개념도 확장되었다. 이제는 희생자 디아스포라에서 노동, 무역, 제국, 기술, 유학 등 다양한 의미의 디아스포라가 나타났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규모도 이제 세계 인구의 3% 정도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 디아스포라는 이제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고, 학문적으로도 조명받기 시작했다. 디아스포라에 관한 연구는 인문학, 사회과학,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국제학, 민족학, 문학비평, 문화 인류학이 망라된 학제적 연구인데, 이들 학문 안에서도 디아스포라는 관심 있는 주제가 되었다.

디아스포라는 이주의 산물이다. 디아스포라에 대한 선교신학의 접근은 이주학과 선교신학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다.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은 기존의 전통적인 선교신학과 달리 통전적이다. 그러면서 탈지역적이며, 수용성과 혼종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전통적인 선교신학이 문화 인류학적 통찰력을 중시한 데 반해,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은 사회학, 인구학, 법학, 경제학, 문화 인류학, 지리학, 노동학과 학제적 연구를 중시한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에서 선교는 디아스포라를 향한 선교로 시작해서 디아스포라와 함께 하는 선교로 마무리된다.

디아스포라 중국인은 장구한 역사가 있는데, 그 기원을 송대(宋代)로

본다. 송대를 시작으로 다섯 번의 시기로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이주시기를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숫자는 5,000만 명에 육박하며 대부분이 중국 남부 출신이며, 동남아시아가 이들의 주요 거주국이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역사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와 관련이 깊다. 에도 시절부터 당인이라 불리는 당나라 상인들이 일본과 교류했는데, 본격적인 일본으로의 이주는 1858년 막부 정부의 유럽 5개국 수호 통상조약과 1871년 청일 수호조약 체결 이후다. 개항장인 나가사키, 나고야, 오사카, 고베, 하코다테, 그리고 동경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중국인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는 디아스포라 중국인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신화교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들의 직업도 다양해졌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복잡한 동아시아 현대사의 변화로 정체성의 혼돈을 많이 겪었다. 일본,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세 개의 국민국가의 영향력 아래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체성을 강요당하곤 했다. 이들에게는 진정한 귀속이 가능한 편안한 공간이 없었다.

디아스포라 중국인이라는 새로운 선교공간은 이주의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선교공간이다. 또한 위기에 처한 중국선교의 새로운 공간으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사역은 경계지대에서 이루어진 주변성을 가진 사역이다. 디아스포라의 주변성은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사역의 선교적인 특성을 더욱 활성화한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사역은 정체성의 혼돈 가운데 있는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 진정으로 귀속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사역이다. 그리고 성령 중심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 5월부터 2021년 9월 현재까지 진행중인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이주의 시대에 변화된 선교환경에 적합한 선교모델이며, 동시에 위기에 처한 중국선교의 새로운 공간으로 적합한 선교사역이다.

V. 결론

A. 요약

본 논문의 제 I 장에서는 중국선교는 중국선교의 역사상 다섯 번째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선교의 인식이 여전히 영토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적절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연구의 동기를 제시했다. 이어서 이러한 중국선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중국선교 공간의 탐색과 공간 개념의 선교 인식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본 논문의 연구방법 및 범위, 선행연구와 용어정의를 다루었다.

제 II 장에서는 이주와 이주가 초래한 선교환경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주는 이 시대의 큰 흐름이며, 이를 통해서 경제, 사회, 정치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선교를 구성하는 선교환경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주는 선교에서 거리의 개념을 소멸시켰으며,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 내 집 앞의 선교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이주는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는데, 이 공간은 관계적이며 위상적인 공간이면서, 종교적인 공간이다. 디아스포라 공간은 경계지대에 위치하며 주변성을 갖고 있다. 경계지대와 주변성의 특징은 디아스포라의 공간을 창조적이며 포용적인 공간이 되게 한다. 이러한 디아스포라 공간의 특징은 디아스포라 공간이 선교공간으로써 적절성을 갖게 한다. 기독교는 시대적 흐름인 이주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왔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그리고 북반구 기독교와 남반구 기독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디아스포라의 공간이 중국선교 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선교공간임을 드러냈다.

제Ⅲ장에서는 Ⅱ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위기의 시대를 맞이한 중국선교의 인식 전환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중국선교의 역사를 분석하여, 중국선교의 의미를 규명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선교의 역사를 여섯 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그 가운데 다섯 번의 위기가 있었음을 고찰했다. 그리고 중국선교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중국이라는 지역 공간, 중국인이라는 대상, 중국어와 문화라는 배경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위기를 맞은 중국선교는 중국선교의 개념을 중국이라는 지리적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를 넘어서, 중국인이라는 대상과 중국어라는 언어, 문화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해야 함을 논증했다. 그리고 중국선교의 위기를 중국선교의 역사 속에서 분석하여 중국선교 역사상 존재했던 위기를 다섯 번의 위기로 분류했다. 여기에 중국선교의 역사에서 위기의 요소를 추출하여 첫째 중국선교사의 위기, 둘째 중국기독교의 위기, 셋째 중국선교의 위기로 분류했다. 이어서 이 세 가지 위기 요소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네 가지 역사적 위기 사례를 사용해 위기의 유형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과 고찰을 토대로 2012년 시진핑 체제 이후의 위기를 다섯 번째 위기로 규정하고, 지금의 위기는 위기의 세 가지 요소인 선교사의 위기, 중국기독교의 위기, 중국선교의 위기가 동시에 진행중이며 아직 그 결말을 알 수 없는 위기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작금의 다섯 번째 중국선교의 위기는 네 번째 위기였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 발생했던 위기와 이를 극복한 사례를 참고한다면 극복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먼저는 중국선교를 지리적 영토개념에서 공간개념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여기에 더해서 디아스포라 중국인이라는 새로운 선교공간의 실제적인 탐색을 제안했다.

제Ⅳ장에서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선교신학적인 이해와 디아스포라 중국인에 관한 역사적 연구를 진행했다. 이어서 디아스포라에 관한 이해에 기초해서 일본 거주 디아스포라 중국인에 대한 개괄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실제적인 사례로 2004년 5월부터 2021년 9월 현재까지의 일본

거주 중국인 선교를 경계지대, 주변성, 성령 중심의 사역, 디아스포라 사역의 몇 가지 특징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중국선교의 새로운 공간으로써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중국선교는 위기에 처했다. 중국선교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선교를 영토 중심의 지리적 접근이 아닌 공간 중심의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 공간 중심의 중국선교 개념으로 중국선교를 인식할 때, 중국선교는 지리적 개념에 갇히지 않으면서 이주의 시대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공간 안에서 중국선교의 새로운 공간 탐색이 가능해진다. 이와 동시에 중국선교의 개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중국선교의 개념 안에 중국이라는 지리적 영토뿐만이 아니라 중국선교를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인 중국인이라는 대상과 중국어 및 중국문화라는 배경을 전부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중국선교들을 포함하는 포용력 있는 하나의 중국선교 개념을 새롭게 인식할 때, 중국선교의 위기 극복은 가능하다.

B. 제언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중국선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선교에 관한 인식이 영토 중심에서 공간 중심으로의 전환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런 인식의 전환에 기초해 중국선교의 새로운 공간 탐색에 나서야 함을 논증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선교를 위해 다음과 같이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1. 중국 교회를 향한 제언

중국선교의 전반적인 위기는 중국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교회를 향한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관여, 압력, 핍박은 중국교회에 심각한 위협

이 되고 있다. 중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금의 위기는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할 때 발생했다. 중국 교회는 지난 기간 중국내에서의 점진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세계선교를 향해 나가고 있었고, 중국 교회의 선교적인 공헌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고 있었다. 그런데 세계선교로 넘어가는 중요한 지점에서 중국 교회가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시기에 중국 교회는 이 위기가 중국이라는 지리적 영토 안에서 발생한 위기임을 인식하고, 현재의 위기가 중국기독교 전체의 위기로 발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교회는 자국 영토중심 선교인식에서 벗어나 공간중심의 선교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이주의 시대가 만들어낸 거대한 디아스포라 중국인 공간에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선교공간인 디아스포라 중국인 공간에 중국 교회 선교인력과 자원을 우선 배치하고, 이 공간에서 디아스포라와 함께 하는 선교를 통해 선교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해야 한다. 디아스포라 중국인 공간에서 양성된 선교인력은 장래 중국 교회 세계선교에 중요한 경험 있는 선교 인력자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중국 교회는 디아스포라 중국인 공간에 대한 선교적인 탐색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디아스포라 교회를 개척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세계선교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과 경험은 중국 교회의 세계선교를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2. 한국 교회를 향한 제언

한국 교회에 있어서 중국선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한국 교회의 첫 번째 타문화권 해외선교는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1912년 장로교 첫 총회에서 결의하고, 1923년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을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하고, 1957년 방지일의 귀국까지 44년간 중국 산둥성에서 한국 교회의 해외선교가 수행되었다.⁴⁸²⁾ 그리고 중국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교회의 최대 선교지였다. 한국의 중국선교는 실제적으로 중국 교회와 중국기독교의 발전과

482) 홍경환, “방지일의 선교와 사상 연구”, 주안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2.

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다. 실제로 연구자가 만난 중국 교회 지도자, 형제, 자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들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영향을 받고 있었다. 『宣敎士』의 저자인 위엔쯔밍 목사도 연구자를 만났을 때, 한국 교회의 중국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말하면서 중국 대도시의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가정교회의 담임목사들이 대부분 조선족 동포 목사들이라는 것을 아냐고 물어온 적이 있다. 그가 언급한 것처럼 도시 가정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최근 한국이 중국과는 정치, 사회, 보건상의 이유로 소원해진 감이 없지 않지만, 한국과 중국은 여전히 선교라는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이웃 국가다. 한국 교회는 중국선교를 향한 특별한 부담과 사명이 있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를 향한 부르심은 중국선교가 위기에 처한 지금 더욱 드러나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는 새로운 중국선교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중국인이라는 선교대상과 중국어와 문화까지 아우르는 확대된 중국선교의 개념을 갖고 새로운 중국선교의 공간을 탐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본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했듯이 한국 교회는 중국선교에 있어서 지리적 영토개념의 선교에서 공간적 개념의 중국선교로 선교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중국선교를 포용하는 새로운 중국선교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중국이라는 지리적 영토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들이 중국이라는 영토 밖에서 새로운 중국선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새롭게 정의된 중국선교 개념을 교육하고,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한국 교회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중국선교의 공간을 탐색하고 개척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오늘날 세계적인 이주현상으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만들어내는 중국선교의 다양한 디아스포라 공간들이 생겨났다. 이런 공간 가운데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지역과 같이 새롭게 형성되는 디아스포라 중국인 공간 등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중국 교회와 함께 하는 디아스포라 선교를 통한 세계선교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동양서]

- 알베르트우스= 토마스·모리 (Allbertus-Thomas Mori), 『華人キリスト人の越境と宗教実践(화인 그리스도인들의 월경과 실천)』, 東京: 風響社, 2020.
- 小林幹夫, 『新日本華人』, 世界のチャイニーズ第5巻, A.O.I, <https://amz.run/55tp>.
- 柴田初男, 『データブック—宣教の更新を求めて(データから見る日本の教会の現状とか課題 데이터로 보는 일본 교회의 현황과 과제)』, 東京: FCCブックレットNo8, 2011.
- 蘇文峰, 『大洋彼岸의長河-美國華人查經班回顧與展望(미국 중국인 성경공부 모임의 회고와 전망)』, California: OCM, 2015.
- 梁家麟, 『福臨中華(중화에 임한 복음)-中國現代教會史十講(중국현대교회사10강)』, 台北: 天道, 1988.
- 远志明, 『宣教士』, California: 神州传播协会, 2016.
- 吳昶興, 『大秦景教流行中國碑』, 新北市: 橄欖出版有限公司, 2013.
- 陳舜臣, 『道半ば(길의 중간에서)』, 東京: 集英社, 2003.
- 趙天恩, 『中國教會史論文集(중국 교회사 논문집)』, 台北: 宇宙光, 2006.
- 彭国雄, 『豐收10年』, Saipan: 塞班華人教會, 2002.
- 김상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서울: 홍성사, <https://bityl.co/9nOI>, 2010.
- 김학관, 『중국교회사』, 서울: 모리슨, 2003.
- _____, 『중국선교의 전망』,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 박수민, 『한눈에 보는 디아스포라 선교』, Tokyo: JCC, 2016.
- 이수구, 『삿포로의 빛나는 십자가』, 서울: 좋은씨앗omf, 2020.

- 이은상, 박규태, 왕언메이, 이창호, 이토이주미, 『20세기 동아시아화교의 지속과 변화』, 서울: 심산, 2017.
- 이정희, 『화교가 없는 나라』, 서울: 리디북스, 2018.
- 임채완 외 4인, 『화교 디아스포라(이주 루트와 기억의 역사)』, 경기: 북코리아, 2013.
- 최병두, 『초국적 이주와 환대의 지리학』, 서울: 푸른길, 2018.
- 최병두 외 3인, 『번역과 동맹-초국적 이주의 행위자 네트워크와 사회공간적 전환』, 서울: 푸른길, 2018.
- 최승현, 『화교의 역사-생존의 역사』, 서울: 화약고, 2006.
- 최종상,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 서울: 성서유니온, 2017.
- 최현민, 『일본 종교를 알아야 일본이 보인다』, 서울: 자유문고, 2020.
- 함태경, 『알았던 선교 몰랐던 중국』, 서울: 두란노, 2015.

[서양서]

- Adeney, Miriam, *Kingdom Without Borders-The Untold Story Of Global Christianity*, Illinois: IVP Books, 2009.
- Aikman, David, *Jesus in Beijing: How Christianity Is Transforming China And Changing the Global Balance of Power*, Washington: Salem Books, <https://amz.run/55v7>, 2003.
- Brah, Avtar, *Cartographies of diaspora*, London: Routledge, <https://amz.run/55tR>, 1996.
- Chow, Rey, *Writing Diaspora: Tactics of Intervention in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Arts and Politics of the Everyda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3.
- George, Sam, Miriam Adeney, *Refugee Diaspora: Missions amid the Greatest Humanitarian Crisis of the World*, Littleton: William Carey Publishing, <https://amz.run/5691>, 2018.

- Hanciles, Jehu J, *Beyond Christendom: Globalization, African Migr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est*, New York: Orbis Books, <https://amz.run/55tq>, 2008.
- Hass, Hein de, Stephen Castles,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20.
- Im Chandler H, Amos Yong, *Global Diasporas and Mission, Regnum Studies in Mission*, Oxford: Edinburgh Centenary, <https://amz.run/55uQ>, 2014.
- Johnson, Todd M, Kenneth R. Ross, *Atlas of Global Christianity 1910-2010*,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9.
- Lambert, Tony, *China's Christian Millions-The Costly Revival*, Oxford: MONARCH BOOKS, 1999.
- Lee, Jung Youn, *Marginality: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kindle, 1995.
- Lewis, Jonathan, *Kairos: World Outreach God, the Church and the World*, Manukau: World Outreach. 2011.
- Mclean-Farrell, Janice A, *West Indian Pentecostals: Living Their Faith in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Kindle, 2016.
- Massey, John D, Mike Morris, W. Madison Grace II,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A History of Southern Baptist International Missions*, <https://amz.run/568r>, 2021.
- Miles, Steven B, *Chinese Diasporas(New Approaches to Asian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ndle, 2020.
- Nguyen VanThanh, John M. Prior, *God's People on the Move: Biblical and Global Perspectives on Migration and Mission*, Oregon: Pickwick, Kindle, 2014.
- Park, Soo Min, *Diaspora Missions at a Glance(Based on real experience in Chinese diaspora ministry)*, Tokyo: JCC, 2017.
- Payne, J. D, *Strangers Next Door-Immigration, Migration and Mission*, Wisconsin: IVP, <https://amz.run/55uR>, 2012.

- Rutt, Steven Richard, *Roland Allen-A Missionary life*, Cambridge: The Lutterworth Press, <https://amz.run/5B4F>, 2018.
- Taylor, James Hudson, *China's Spiritual Need and Claims*, <https://amz.run/5Awk>, 1887.
- Tira, Joy Sadiri, Juliet Lee Uytanlet, *A Hybrid World: Diaspora, Hybridity, and Missio Dei*, Littleton: William Carey Publishing, Kindle, 2020.
- Tira, Joy Sadiri, Tetsunao Yamamori, *Scattered and Gathered*, Cumbria: Langham Creative Projects. Kindle, 2020.
- Wan, Enoch, *Diaspora Missiology: Theory, Methodology, and Practice*, Portland: West Seminary, <https://amz.run/55tH>, 2011.
- Wu, Jeanne, *Mission through Diaspora*, Cumbria: Langham Creative Projects, <https://amz.run/55vJ>, 2016.

[번역서]

- 羅冠宗, 『前事不忘 後事之師』, 유동선, 윤신영 역, 『지난 일을 교훈 삼아』, 서울: 한들출판사, 2019.
- 徐京植, 『ディアスポラ紀行-追放された者のまなざし』, 김혜신 역, 『디아스포라 기행-추방자의 시선』, 서울: 돌베개, <https://bityl.co/9oUV>, 2012.
- 王怡, 『背负十字架』, 느헤미야 역, 『십자가를 짊어지고(중국가정교회 역사 1807-2018)』, 서울: 서로북스, 2021.
- 汪中求, 『1750-1950의 중국』, 김영진 역, 『중국사 재발견』, 서울: 서교출판사, 2012.
- Allen, Roland,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홍병룡 역, 『바울의 선교 vs. 우리의 선교』, 서울: IVP, 2008.
- _____, *Missionary Principles*, 권순광 역, 『선교의 영』, 서울: CLC, 2008.
- Bos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김만태 역, 『변화하는 선교』, 서울: CLC,

2017.

Castles, Stephen,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한국이민학회 역, 『이주의 시대』, 서울: 일조각, 2018.

Cohen, Robin, *Global Diasporas: An Introduction*, 유영임 역, 『글로벌 디아스포라 :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서울: 민속원, 2016.

Flemming, Dean, *Recovering Full Mission of God: A Biblical Perspective on Being, Doing and Telling*, 한화룡 역, 『하나님의 온전한 선교』 서울: 대서, 2015.

French, Howard W, *China's Second Continent*, 박홍경 역, 『아프리카, 중국의 두 번째 대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Hiebert, Paul G,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김동화 외 3인 역, 『선교와 문화인류학』, 서울: 조이선교회, 1996.

John Hirst, *The Short History of Europe*, 김종원 역,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 서울: 위즈덤하우스, 2017.

Kenny, Kevin, *Diaspora: A Very Short Introduction*, 최명석 역, 『디아스포라 이즈 is』, 서울: 엘피, 2016.

Miles Steven B, *Chinese Diasporas: A Social History of Global Mi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amz.run/55tZ>, 2020.

Moffett, Samuel Hugh,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Asia*, 김인수 역, 『아시아 기독교회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Mullins, Mark R, *Christianity made in Japan*, 김성건, 이숙희 역, 『일본의 종교-토착교회 운동』, 2019.

Murphy, R. Taggart, *Japan and the Shackles of the Past*, 윤영수, 박경환 역, 『일본의 굴레』, 경기: 글항아리, 2021.

Perruchoud, Richard, Jillyanne Redpath, *Glossary on Migration*, 『이주 용어 사전』 제2판, IOM, 2011.

Pocock, Michael, Gailyn Van Rheenen, and Douglas McConnell, *Changing Face of World Missions*, 박영환 외 3인 역, 『변화하는 내일의 세계선교』, 서

울: 바울, 2008.

Rainer Albertz, *Die Exilszeit 6. Jahrhundert v. Chr.*, 배희숙 역, 『포로시대의 이스라엘』,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9.

Ross, Kenneth R, Jooseop Keum, Kyriaki Avtzi and Roderick R. Hewitt, *Ecumenical Missiology-Changing Landscapes and New Conceptions of Mission*, 한국에큐메니컬학회 역, 『에큐메니컬 선교학-변화하는 지형과 새로운 선교개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8.

Samers, Michael , *Migration*, 이영민 역, 『이주』, 서울: 푸른길, 2017.

Sunquist, W. Scott, *Explorations in Asian Christianity-History, Theology and Mission*, 이용원 역, 『아시아 기독교 탐구』, 서울: 미션아카데미, 2018.

_____, *Understanding Christian Mission-Participation in suffering and Glory*, 이용원, 정승현 역, 『기독교 선교의 이해』, 인천: 주안대학교출판부, 2015.

Schroer Markus, *Räume, Orte, Grenzen-Auf dem Weg zu einer Soziologie des Raums*, 정인모, 배정희 역, 『공간, 장소, 경계-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서울: 에코리브르, 2010.

Taylor, Hudson, *Hudson Taylor*, 김지찬 역, 『거침없는 믿음의 사람 허드슨 테일러』, 서울: OMF생명의말씀사, 1997.

Tira, Sadiri Joy, Tetsunao Yamamori, *Scattered and Gathered*, Harry Kim, 문창선 역, 『디아스포라 선교학』, 서울: 더메이커, 2018.

Valentien, Gill, *Social Geographies: Space And Society*, 박경환 역,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경기: 한울, 2014.

Wright, Christopher J. H. , 한화룡 역, *The Mission of God's People*, 『하나님 백성의 선교』, 서울: IVP, 2012.

[논문]

Walls, Andrew F, "Mission and Migration: The Diaspora Factor in Christian History," *Journal of African Christian Thought*, 2002, 6-9.

- 陳碧笙, “关于华侨史分期的几个问题(화교역사 구분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 「社会科学战线」4期, 1983, 155-160.
- 百古樂, 在日華人教会の布教と課題 : 在日華人クリスチャンセンターの活動を事例に(재일화인교회의 포교와 과제 : 재일 화인 크리스찬 센터의 활동을 사례로), 「北海道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研究論集」 第15号, 2016, 271-288.
- 赵红英, “试论中国大陆新移民的特征(중국대륙 신이민의 특징에 대한 시론),” 「八桂桥刊」 第3期, 2001, 10-13.
- 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 “平成27年度 中国残留邦人等実態調査結果報告,” 2017, 1-24.
- 강성민, “인간이여 너는 무엇인가? 디아스포라가 펼치는 존재의 현상학,” 「인물과 사상」 통권 제111호, 2007, 80.
- 고영은, “중국 시진핑 정권의 권력구조와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 「신학과 목회」 제51집, 2019, 187-208.
- 김광성, “로잔운동과 세계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형성,” 「미션네트워크」 제5집, 2014, 224-247.
- _____, “중국의 종교정책이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에 미친 영향: 기독교 중국화에 대한 선교 실천적 대응,” 「선교와 신학」 제48집, 2019, 44-81.
- 김상근, “21세기 기독교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앤드류 월스의 선교신학,” 「기독교사상」 통권 제558호, 2005, 228-235.
- _____, “로랜드 알렌이 제시했던 바울의 선교방법,” 「기독교사상」 통권 제557호, 2005, 240-247.
- 김석주, “개혁 개방 이후중국 교회 현황과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 「기독교사상」 통권 제696호, 2016, 73-82.
- 김선, “세계 기독교 시대의 선교 패러다임 켄테 기독교: 서아프리카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의 이주와 초국가적 공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김성훈, “디아스포라 선교의 새로운 지평들,” 「KMQ」 통권 제53호, 2015, 133-148.
- 김성훈, 문창선, “로잔 디아스포라 운동과 이주민 선교,” 「미션인사이트」 제7집, 2016, 132-139.
- 김아모스, “중국선교환경의 변화,” 「중국을 주께로」, 통권 제218호, <https://bityl.co/9nLb>, 2020, 특별기고.
- 김영동, “디아스포라 선교학 틀에서 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신학적 과제,” 「장신논단」 제49권 제4호, 2017, 338-364.
- _____ “입국 거부와 추방 선교사의 역사적 통찰과 전망-중국 공산화 이후와 최근의 경우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제47집, 2019, 14-40.
- 김현배, “유럽 한인교회의 선교허브의 중요성,” 「미션인사이트」 제4집, 2013, 117-127.
- 배희숙, “구약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선교,” 「선교와 신학」 제16집, 2005, 14-35.
- 안교성, “한국의 디아스포라신학 발전에 관한 한 소고,” 「장신논단」 제46권 제2호, 2014, 90-113.
- 우심화,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에 대한 진단과 제언,” 「기독교 사상」 통권 제638호, 2012, 50-63.
- 정민영, “21세기 선교동향과 비서구교회의 책임,” 「미션인사이트」 제4집, 2013, 34-48.
- 정성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자기인식과 디아스포라 미션,” 「선교와 신학」 제17집, 2006, 14-37.
- 정은주, “이주 공간 연구와 이주민 행위 주체성(agency) 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23집 제2호, 2017, 145-185.
- 최성일, “롤란드 알렌의 바울 선교 방법론과 성령의 선교에 대한 이해,” 「신학연구」 제37집, 1996, 335-368.
- 최진호, “선교사 입국 거절 상황과 대응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제47집, 2019, 78-117.

최현주, “이정용의 주변성 인식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제52권 제3호, 2020, 62-85.

함태경, “시진핑의 장기 집권 체제와중국 교회, 중국선교 그리고 선교중국,” 「KMQ」 통권 제69호, 2019, 119-183.

현한나, “디아스포라를 넘어(Beyond), 디아스포라와 함께(With):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을 통한 한국의 다문화 교회 모델 세우기,” 「선교신학」 제57호, 2020, 327-331.

홍경환, “방지일의 선교와 사상 연구,” 주안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사전]

華僑華人の事典編集委員会, 『華僑華人の事典』, 東京: 丸善出版, 2017.

John D. Barry, T. Micahel W. Halcomb, Micah Wierenga, *Lexham Bible Dictionary*, “Diaspora,” Bellingham: WA, 2020.

[인터넷]

<http://behold.oc.org/?p=42938>, 접속일:2021년 5월2일.

<https://www.e-stat.go.jp/dbview?sid=0003416093>, 접속일: 2021년 3월9일.

https://en.wikipedia.org/wiki/Overseas_Chinese, 접속일: 2021년 3월8일.

<http://iom.or.kr/index.php/국제이주란/>, 접속일:2021년 5월19일.

<http://www.kirishin.com/2016/10/22/18532/>, 접속일: 2021년, 9월7일.

<https://www.kikokusha-center.or.jp/kikokusha/tohkei/kojitohkei.htm>, 접속일: 2021년 3월11일.

<https://www.lausanne.org/content/statement/the-seoul-declaration-on-diaspora-missiology>, 접속일: 2021년 3월3일.

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bunya/engo/seido02/kojitoukei.html, 접속일:

2021년 3월9일.

<https://migrationdataportal.org/themes/international-migrant-stocks>, 접속일: 2021년 4월23일.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632850/chinese-nationals-number-overseas-by-continent/>, 접속일: 2021년 3월8일.

<https://bitly.co/8kRD>, 접속일: 2021년 9월19일.

Abstract

The era of constant crisis in China's mission has begun. The crisis facing the China mission has worsened since the Xi Jinping government took over, critically weighing on the Korean church's missionary work and its efforts. However, at the same time, this crisis offers an opportunity to approach the China mission from different angles and to further improve upon the existing missionary efforts.

The China mission has been cultivated through a firm focus on the geographical angle, but this traditional view of the world has been losing its ground as migration became the norm today. The emergence of diaspora and transnationalism created new space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the traditional territorialism. This uncharted space is created by, thus belongs to, diaspora. This novel space that exists on the borderline is the subject of the exploration of the China mission, featuring unique characteristics of marginality, hybridity, and creativity.

I argue for a new concept, grounded on space, for the China mission. To demonstrate this argument, analyzes today's crisis facing the China mission in relation to the historical context and within the elements of missionary work's construct, proving that the current crisis is occurring inside the Chinese territory and is threatening the China mission and the missionaries in China at large.

As a solution to this crisis, I suggest an interpretation that the China mission goes far beyond the physical Chinese territory, and that the China mission, at its fundamental core, should be multifaceted and include a broader target of the Chinese people, the Chinese language, and the Chinese culture. Put differently, a call for a more expansive interpretation of the China mission. As evidences for this assertion, I provide analyses of his Chinese diaspora missionary

work from May 2004 to today, September 2021, particularly through the unique lenses of diaspora.

Key words: China mission, China mission crisis, China mission concept, diaspora, diaspora mission space, Chinese diaspora in Japan